

ACC, 아시아 문화 가치 창출 '복합문화공간' 발돋움

세계 향한 문화의 창·시민 문화 사랑방...누적 방문객 1900만명 돌파
콘텐츠 66% 창·제작...지역 문화자산 토대 '대표 브랜드' 개발 시급



**ACC 개관 10주년
성과와 과제**

<상> 융복합 창·제작 발전소

올해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ACC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문화발전소 역할을 자임해왔다. ACC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2회에 걸쳐 실는다.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개관한 문화전당은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을 비롯해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시아 문화 예술 허브로 도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대표 브랜드, 길리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상존한다.

ACC는 2022년 아시아문화원과 통합을 계기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토대를 갖았다. 그동안 실험적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 연구 교류 강화,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 사랑방을 지향하며 내실 다지기를 해왔다.

10일 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ACC 누적 방문객 수는 1900만명, 특히 지난해는 개관 이래 최조 한 해 방문객이 320만명을 돌파했다. 콘텐츠 1910건 가운데 66%인 1255건이 창·제작된 문화 창작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ACC는 복합전시관(1-6)에서 동시대 체험형 융·복합 현대미술 전시를 열어 관객들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열린 '디어 바바노냐'와 '이음 지음' 전시는 개관 이후 최조 관람객 수 20만명을 넘었다. 고무적인 것은 주말 가족 단위 관람객과 20~30대 젊은 층이 전시장을 찾아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겼다는 점이다.

또 2022년 전시 '사유정원, 상너머를 거닐다'(18만9044명), 2023년 전시 '물임미감-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14만2820명)도 관람객 수가 각각 10만명을 돌파했다. '사유정원, 상

너머를 거닐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2023' 전시 부문 메리트상을 수상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 현대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은 짧은 기간 전시임에도 호평을 받았다. 입소문을 타고 10여 만명이 다녀갔는데, 이는 콘텐츠가 우수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충분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해까지 9회째 개최한 융복합 축제 'ACT페스티벌'은 다양한 융복합 연구와 맞물려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외 미디어아트 거장 외에도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ACT 페스티벌'을 거쳐 갔으며, 지난해 사운드아트의 거장 로지 이케다는 개관 퍼포먼스 이후 다시 페스티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ACC는 국내 최대 블랙박스 극장에서 아시아 및 동시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도 선보였다. 국제협력력을 통해 11편을 창제작했으며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이 모티브가 된 '전쟁 후에'는 본 공연을 거쳐 2023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상연되면서 입소문을 탔다.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가족의 사연을 담은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광주를 넘어 오월 정신을 알리고 공유하는 주요 콘텐츠였다. 특히 '오월어머니의 노래' 사연 중 하나인 고(故) 문재학 군 이야기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로 차용돼 화제가 됐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찢는 사람'과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도 광주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문화전당이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 창조의 산실'로 도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 일반 시민이나 관람객에게 각인될 만한 대표 브랜드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초창기에 비해 실험성이 강하고 전위적인 경향의 콘텐츠 창제작은 줄었지만 'ACC하면 떠오르는 콘텐츠가 없다'는 문화계 안팎의 평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가 안정화되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다수 창제작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팩트 있는 브랜드 콘텐츠가 미흡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발전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명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 세계 흑두루미 절반 7600여마리 순천만에 왔다 10일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가 순천만 습지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봇대 제거 등 순천시의 지속적인 생태보전정책으로 올해 순천만 습지를 찾은 흑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인 7600여마리로 증가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회복·성장으로 '잘사니즘' 구현 민생 회복 위해 30조 추경 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는 이날 제422회 국회 임시회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이념과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

형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고,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증착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참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상생 소비 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장,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소기업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에 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등 A부터 F까지 키워드에 따른 기술 육성과 국가 투자 등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쳐 한국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포항·울산·광양·여수·아산 지역 경제는 썩대밭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